

HORIZONS

A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World Leadership Community
in discernment and every member of CVX-CLC.



주님,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저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 주소서

Nº 187 | 2026년 4월

원문: 영어

주님 안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연례 대면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그 결실을 담아 이 글을 전합니다. 올해 회의는 홍콩 CLC 공동체의 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머물며,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했던 우정과 연대, 성찰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기를 깊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의 대면 회의는 지난 2023년 아미앵(Amiens) 세계 총회부터 오는 2028년 차기 세계 총회까지의 여정 중 중간 지점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아미앵 총회에서 파견되어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이 하나의 세계 공동체를 위해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음을 큰 기쁨과 열정으로 경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나아간 방식은 다시 한번 우리 CLC의 고유한 행동 방식, 즉 DSSE-식별(Discern), 파견(Send), 지원(Support), 평가(Evaluate)를 삶으로 살아낸 체험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순환 과정은 EDSS-평가(Evaluate), 식별(Discern), 파견(Send), 지원(Send)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핵심 행동 방식을 삶으로 체험한 것은 이번 리더십팀의 일원으로서 매우 뜻깊은 이정표였습니다. 이 몇 페이지의 글 속에서 읽으시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내려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고, 이 결정들은 모두 진정한 공동체적 식별의 정신 안에서 이루어진 후, 조화롭게 공유된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주님, 저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 주소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가의 과정

과거 두 차례의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가 과정은 지역별 팀들 및 사도직 팀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두 가지 실천적인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팀이 한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시도는 대면 회의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동일한 성격의 사전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회의들은 우리가 서로의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동일한 세계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더욱 깊이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회의에는 약 30명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선출되고 파견된 이들이 최소 60명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사실을 성찰해 보십시오. 60명이 넘는 이들이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파견되어, 모두가 하느님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저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 주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항구를 건너 언덕을 걸어(사실상 등반하여) 올라간 끝에, 청차우섬(Cheung Chau Island) 언덕 높은 곳에 위치한 우리의 회의 장소인 하비에르 하우스(Xavier House)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수하물은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무게가 한참 초과해 있었는데, 이는 하나의 세계 공동체 회원인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찰과 기도, 헌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지지가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날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적 식별과 참된 이냐시오적 평가는 반드시 기도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성 생활, 직업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2025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적 삶을 **평가했습니다**. 이 기도와 나눔의 날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에 의해 리더십 안으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파견된 CLC 회원들의 모임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공유된 성소에 뿌리를 두고, 공동체적 식별을 통해 공동체가 우리에게 맡겨 준 봉사 직무를 삶으로 실현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여는 CLC 소공동체(또는 나눔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매우 깊은 인간적, 영적 차원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리더십 팀이 자신들의 사명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CLC의 행동 방식에 따라 봉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고합니다. 봉사하도록 파견된다는 것은 참으로 은총입니다.

우리의 평가 과정은 중국 설날의 기쁨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Kung Hei Fat Choy)!!



우리의 식별

우리의 평가 과정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식별의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우리는 공동체의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시급한 현안들이 있음을 인지한 채 회의에 임했습니다. 전 세계 공동체 안에서 공유된 목소리와 경험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2026년이 차기 세계 총회와 그 이후를 향한 우리 여정의 후반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식별이 바로 재의 수요일에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우연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를 잠시 멈추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하느님 중심에 두라는 초대이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 여정의 다음 단계를 굳건히 다지라는 부르심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참된 식별의 필수 조건인 더 깊은 귀 기울임과 성찰로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정관(General Principles) 개정 과정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핵심 문서인 정관(General Principles)의 개정 과정을 함께해 주고 있는 국제 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작업이 진정한 공동체적 여정, 즉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이상적으로는 모든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식별 과정이기때문에, 우리 각자의 기도와 인내, 그리고 깊은 귀 기울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동체로부터 받은 응답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우리는 이미 정관 개정안의 1차 초안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텍스트(초안)에 반응하며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다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데 있습니다. 그 어떤 '기본적인' 원칙도 전 세계의 지역적 현실을 100%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은 '여러분 자신을 이 텍스트 안에서 알아볼 수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글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정신에 공감하십니까? 아울러 우리가 미처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게 강조할 점은, 이 개정 과정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에 감사하는 시간인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앞을 내다보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공동체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더 깊이 다지고 확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더 의식적으로 협력하며, 다른 이들과 더 관대하게 연대할수록, 하나의 평신도 이냐시오 사도직 공동체 (One Lay Ignatian Apostolic Community)로서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색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통해 우리 여정을 더 풍요롭게 가꾸어 갈수록,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뢰와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저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 주소서."

차기 세계 총회(World Assembly) 개최지

차기 세계 총회를 개최할 공동체를 식별하는 과정은 지난 7월, 우리가 전 세계 모든 공동체에 이 중요한 모임을 기꺼이 맞아들일 역량이 있는지 성찰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받은 매우 긍정적인 응답들을 통해 참으로 큰 은총을 누렸습니다. 이 식별 여정에 함께해 준 모든 공동체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준비를 이어간 공동체들은 물론, 큰 사랑과 성숙함으로 첫 제안을 거두어들이기로 선택한 공동체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각각의 응답 속에는 우리의 전 세계 공동체의 안녕을 향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 동안, 우리는 매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적 식별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펼쳐진 영적 대화는 매우 깊이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늘 사랑과 주의 깊음이 가득했으며, 전체 공동체를 향한 진정 어린 염려가 돋보인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식별 과정의 최종 결실을 공유하려는 것은 아니며, 머지않아 차기 세계 총회만을 온전히 다루는 별도의 서한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러분이 개최 후보지였던 모든 공동체에 은총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이미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 그리고 아낌없는 헌신이 봉헌되었습니다.

차기 세계 총회(World Assembly)의 주제

한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며, 일 년에 단 한 번뿐이기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기 세계 총회의 모습을 마음껏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찰과 식별의 정신 안에서, 총회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주제들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흘러나온 깊은 나눔과 영감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어갈 식별 여정에 계속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천을 중시하는 공동체의 성격에 맞추어, 총회 준비를 위한 실무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일정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덕분에 평온함과 분명함, 그리고 내적 자유 안에서 이러한 준비 과정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국제 사도직 팀(International Apostolic Teams)의 현재와 미래

우리 공동체 삶의 본질적인 차원은 사도직 활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아미앵 총회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년간 심어놓은 여러 사도직 사업(이니셔티브)들을 돌보아야 할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 일부가 서서히 성숙해 가며 고유한 색깔을 갖추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 결실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 회원들의 관대함과 창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몇몇 사도직 사업들은 새로운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식별하는 리더십 팀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필요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지지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도직 팀, 특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팀들을 향한 우리의 동반이 온 공동체에 명확히 보이고 느껴지기를 희망하며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 사도직의 우선순위에 더 큰 초점을 맞추도록 명확히 권고했던 아미앵 총회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소수의 CLC 회원들을 초대해 호라이즌 186호의 공동 집필 팀을 구성하며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습니다”. 이 경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기에,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중 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주제에 헌신할 미래의 국제 사도직 팀을 위한 ExCo 연결(ExCo Link) 담당자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이 중요한 과업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들을 발굴하고 협력하기 위해 각 국가 및 지역 팀들에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해드릴 후속 소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청합니다.

안전 보장(Safeguarding)

우리 공동체는 안전 보장(safeguarding)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전담하는 통칙 제16조(Standing Order 16)를 시행해 왔습니다. 교회의 평신도 공동체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임이 안전하고 따뜻하며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안전 보장 분야에서 활동하는 CLC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이 통칙 제16조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전 세계 모든 공동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대륙별 지역에서 한 명씩, 총 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이 본질적인 과업을 협력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은 그들의 작업 결과물에 깊은 은총을 느꼈습니다. 이 팀은 전 세계 공동체를 위한 안전 보장 정책(Safeguarding Policy for the World Community)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절차와 실천적 지침, 그리고 풍부한 모범 사례들을 문서로 담아냈습니다. 이는 온 공동체와 공유하고자 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문서입니다. 이 새로운 텍스트는 기존 통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기존 통칙 제16조를 폐지하고 이 새로운 문서를 세계 CLC 공동체의 안전 보장 정책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검토 팀과 함께, 공동체가 이 정책을 의미 있고 실천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성찰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우리는 각 지역 공동체들이 이 정책을 이행하고 자신들의 국가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지지, 그리고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지역 공동체별 안전 보장 정책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각국에서 이용 가능한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온 공동체에 걸쳐 키워나갈 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Stephen Chow 추기경님과의 만남



홍콩 교구장이신 예수회 소속 Stephen Chow 추기경님께서 하비에르 하우스를 방문하시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성찬례를 집전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저녁 식사와 더불어 대화와 친교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사목적 친밀함, 그리고 문화 간 개방성을 몸소 보여 주신 추기경님의 증언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고 계심을 조용하지만 깊이있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추기경님께서 모든



대화 안에서 '주의 깊게 경청하는 은총'이 소중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셨습니다.

홍콩 공동체와의 만남



우리는 특정 지역에서 회의를 가질 때마다, 그 지역 공동체 및 인접 지역 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입니다. 이는 회원들을 직접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세계 곳곳에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리의 이번 모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들에게 매우 특별한 순간인 설날, 즉 깊은 의미를 지닌 가족 명절 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홍콩 CLC가 공동체적 사도직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학교인 마리마운트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의 초대에 전폭적인 열정으로 화답해 주신 것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홍콩 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카오,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수많은 회원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기쁨이자 은총이었습니다.

홍콩 공동체와 홍콩 예수회 장상, 신부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함과 환대는 참으로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이 은총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는 참으로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었으며, 단순히 친구들과 모이는 자리를 넘어 주님 안에서 벗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보금자리와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를 맞아준 관대하고 따뜻한 회원들과 예수회 공동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정은 우리가 하나의 세계 공동체임을 삶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나눈 수많은 과제들을 올 한 해 동안 지속해서 다루어 나갈 예정이오니, 앞으로 전해 드릴 공동체의 소식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울러 우리와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의 평신도 이냐시오 사도직 공동체 (One Lay Apostolic Ignatian Community)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 심화하는 가운데, 늘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길을 찾으며, 하나 되어 소통하고 연대하며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Chris MICALLEF • Daphne HO • Catherine WAIYAKI
Inji FAYEZ • Cecilia MARTÍNEZ • Catherine KELLY
Franklin IBAÑEZ • Manuel MARTÍNEZ • José DE PABLO S.I.